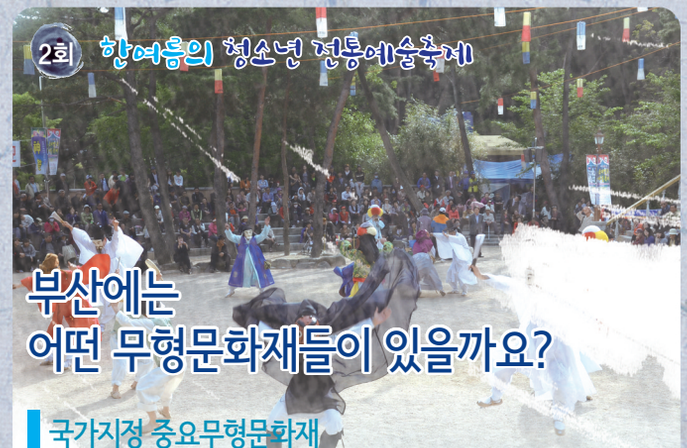


부산에는 어떤 무형문화재들이 있을까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東萊野遊) : 민속가면극
제43호 수영야류(水營野遊) : 민속가면극
제45호 대금산조(大笒散調) : 기악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민속놀이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東海岸別神굿) : 무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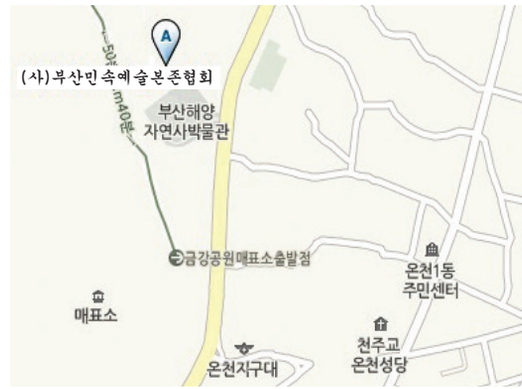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 민속놀이(농요)
제3호 동래학춤(東萊鶴춤) : 민속무용
제4호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밟기) : 민속놀이
제5호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 제의
제6호 부산농악(釜山農樂) : 농악
제7호 다대포(多大浦)후리소리 : 민속놀이(어로요)
제8호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 기악
제9호 부산영산재(釜山靈山齋) : 불교의식
제10호 동래고무(東萊鼓舞) : 교방무용
제11호 구덕망께터다지기 : 민속놀이(노동요)
제12호 주성장(鑄成匠) : 금속범종제작
제13호 사기장(沙器匠) : 백자제작
제14호 동래한량춤(東萊한량춤) : 민속무용
제15호 불화장(佛畵匠) : 전통불화제작
제16호 아쟁산조(牙箏散調) : 기악
제17호 화혜장(靴鞋匠) : 전통신제작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釜山고분도리걸립) : 민속놀이
제22호 수영지신밟기(水營地神밟기):민속놀이

■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학교명	전수종목	인원	지도교사	지도강사
부산여자대학아동스포츠과	동래학춤	43	김해성	김태형 · 배철희
부산전자공업고교	동래야류	44	심재권	이도근 · 정영배
동래원예고교	동래지신밟기	45	김금옥	장재근 · 김준호
경성대학교(연극영화학과)	동래고무	40	이기호	김경화 · 백정강
경성대학교(무용학과)	동래고무	30	최은희	김온경 · 윤여숙
삼정고교	동래지신밟기	48	신영갑	이선구 · 임도영
금성전자공업고교	동래지신밟기	48	오상흔	박지영 · 심옥자
부산예술고교	동래고무	20	최소영	박순희 · 문임선
부산정보관광고교	동래학춤	45	배진영	이성훈 · 구옥자
동래중학교	동래학춤	40	황무숙	이광호 · 김신영
혜화여중학교	동래학춤	30	한명주	김정원 · 임형석

오시는 길



지하철
온천장역 및 명륜역하차 도보 15분

일반버스
36, 46, 49, 50, 51, 100, 110-1, 179, 183, 189 온천입구 하차 도보 600m

마을버스
마을버스 1-1번, 7번

자동차
※ 금정구방면 : 금정구청→GS마트→부산대 입구에서 좌회전(부곡동방면)→두꺼비 주유소→온천입구 사거리에서 좌회(600m)
※ 해운대방면 : 안락교차로→명장정수장방면(동호주유소에서 좌회전)→용인고등학교 방향
※ 만 덕 방 면 : 미남교차로→내정교차로 좌회전→온천장사거리에서 우회전→온천장이구사거리 직진

2회

한여름의 청소년 전통예술축제

참여학교
- 금정전자공업고등학교
- 동래원예고등학교
- 삼정고등학교
-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 금성초등학교

일 시 | 2014. 7. 14 오후 3시
장 소 | 부산민속예술관 놀이마당
(우천시 실내 공연장)

주최 · 주관 | 동래지신밟기보존회,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후 원 | BSCF 부산문화재단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

본 공연은 2014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공연프로그램 참여학교 • 단체

프로그램	시 간	참여학교
동래지신밟기	15:00~15:30	동래지신밟기보존회
동 래 학 춤	15:40~15:55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동 래 야 류	16:00~16:25	동래야류보존회
동래지신밟기 (합 동)	16:30~17:20	금정전자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삼정고등학교.금성초등학교

동래야류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1967. 12. 21 지정)

동래야류는 한국 가면놀이 중 남부형인 야류, 오광대 계열이다. 초계 밤바리에서 대광대패들에 의해 놀았던 탈놀음이 낙동강 동쪽으로 전파되어 신반, 진주, 마산(창원), 수영을 거쳐 동래로 유입되어 동래의 지역성이 진하게 배어 있는 도시형 탈놀음이다.

동래야류는 한국 전통 연극양식으로 가무악이 복합된 연희형태이며, 서민들이 양반들에 대한 풍자와 비판, 골계적인 재담과 몸짓으로 양반들을 희롱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내는 내용이다. 해학성이 진하게 깔려있고 유식한 문장으로 재담을 풀어내어 격조 있는 멋으로 연희를 풀어가는 묘미가 특징이다.

웅박캥캥 굿거리장단에 덧배기춤과 배김사위가 일품이며, 특히 말뚝이 재담과 말뚝이 탈은 동래야류의 가장 큰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행과정은 모두 다섯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군무과장 2.문둥이과장 3.양반과장 4.영노과장 5.할미 영감과장 이다.

동래야류는 현재 부산의 10가지 자랑 중 하나로 공식 선정되어 있다.

동래학춤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3호(1972.9.19 지정)

동래학춤은 동래지역 한량들이 즐겨 추었던 동래 덧배기춤의 한 유형이다. 동래는 예로부터 지형이 학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학소대, 학암, 학란마을 등 학에 관한 지명들이 많았다. 또한 천연온천과 함께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동래 사람들도 가무에 능하고 풍류를 즐겨 놀이 문화가 풍성한 곳이 되었다.

동래학춤은 학의 사실적인 모의무가 아니라 그 춤사위가 마치 학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학춤이라 하였고, 자연미와 예술미가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래학춤은 동래 덧배기춤 특유의 멋으로 승화되어 예술적으로 표출된 춤으로 기품과 격조가 있는 대표적인 민속춤이다. 우아하면서 소박한 춤사위, 그리고 배김사위와 춤의 상징성이 동래학춤의 특징이다. 이춤은 홀춤으로도 추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군무로 연희되고 있다. 특징적인 춤사위는 일자사위, 소쿠리춤사위,옆걸음사위, 모이줍는사위, 소매걷움사위, 배김사위(겹배김사위, 뒷배김사위, 좌배김사위) 등이다. 복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흰바지저고리에 흰도포를 입으며 반주음악은 사물악기(징,꽹과리,북, 장구)에 구음을 얹어 굿거리장단으로 연주한다.

동래지신밟기

부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제4호 (1977.12.11지정)

동래지신밟기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초부터 보름 사이에 동래에서 놀았던 마을 공동체 놀이로서, 매굿, 걸궁, 마당밟기놀이, 지신풀이 등 주술적 축원에서 발원된 동래의 토속적 민속놀이이다.

풍물을 치면서 춤과 풀이, 해학적 몸짓으로,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과 풍농을 빌고 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하는 토속신앙이 바탕을 이룬제의적 놀이 형태이다. 동래지신밟기의 특징은 타 지방처럼 화려한 채복을 입지 않고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으며 삼색띠는 착용하지 않고 고깔을 쓴다.

마당놀이에서 소고춤과 북놀음, 그리고 잡색들의 해학적인 연희가 돋보이며, 메나리조의 지신풀이 선율과 사설내용 및 짜임새가 독특하고, 굿거리장단과 덧배기춤이 강조되는 동래 지역성이 강한 놀이다.

동래고무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 10호(1993. 12. 31 지정)

동래고무는 고려초기 여악(女樂)을 관장했던 교방청(敎坊廳) 여기(女妓) 들에 의해 연행되었던 향악정재(鄕樂呈才)인 무고(舞鼓)가 동래관아(東萊官衙)의 교방으로 전래되면서 관아에 예속된 기녀들에 의해 동래고무라 칭하여 연례무로 연행되었던 북춤의 일종이다.

이 춤은 궁중 정재가 동래관아로 전래된 춤이기 때문에 교방청 계열의 법춤으로 엄격한 춤의 규범이 선행되어야 하며, 궁중정재의 영향을 받아 품위를 중시하며 우아함과 화려함 그리고 섬세한 춤사위가 특징이다.

중앙에 큰 북을 놓고 원무 4인이 나란히 등장하여 북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이어 협무 4인이 나오면서 지화자를 가창하면 원무는 그 지화자에 맞추어 북을 치면서 북 주위를 돌며 북춤을 춘다.

손을 여미는 사위, 단아하고 섬세한 디디법, 나비가 하늘거리는 것 같은 아리따운 팔사위, 북을 치는 활달한 북춤사위 등 자연스러우면서도 유려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주음악은 영산회상곡으로 동래에서는 정악 또는 풍류라 일컫고 잔영산(세령산) · 염불 · 도드리 · 지화자(창사) · 자진타령 · 타령 · 군악의 순으로 연행된다. 복식은 원무가 녹의홍상 · 녹색원삼 · 색한삼 · 족도리를, 협무가 녹의홍상 · 색한삼을 착용하며 8인의 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래한량춤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 (2006.12.27지정)

예로부터 동래는 천연온천이 있는 관광지역으로 각종 놀이문화가 풍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춤을 중심으로한 풍류꾼들의 예기(藝技)는 일반사람들의 연희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예인으로서 예술적 수준이었다. 특히 동래는 가창(歌唱)이나 음율(音律)보다 춤꾼이 더 성하였고 명무들도 많아서 동래마을이 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동래는 동래관아(東萊官衙)에 소속된 아전들과 천연 온천으로 인한 한량들의 방놀음, 그리고 동래권번에 출입하는 풍류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무악을 즐기는 예향 지역이다.

특히 동래 한량무는 탈놀음인 동래야류 양반과장의 덧배기춤과 사랑방의 멋쟁이 한량들에 의해 연희 되었던 입춤 형식의 굿거리 춤이 더해진 춤이다.

대부분의 민속춤이 억압받는 서민들의 애환이나 서러움, 맺힘의 표현이 강조되는데 반하여 동래한량춤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내적으로 승화시켜 절제와 품격, 그리고 영남춤의 호방한 남성무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춤 자체의 묘미가 강조되는 전문예인의 홀춤이다.

특징적 춤사위는 도포자락 놀리는사위, 부채펴는사위, 부채메고 어루는사위,연풍대사위 등이다. 복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착용한다. 반주음악은 삼현육각 또는 사물악기의 굿거리장단에 구음을 얹어 연주한다.